

대구광역시엔퍼 **Weekend**

영주 '뮤지컬 금성대군' 내일 막올라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26일 오후 7시, 27일 오후 8시, 7시 이틀간 영주문화예술회관 가치홀에서
 3회에 걸쳐 무료로 공연이 진행된다.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소백예술단(단장 김진동)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불의에 맞서 옳은 일을 행하고자 위협을 무릅쓰고 분연히 일어나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했던 금성대군과 그의 올곧은 정신을 지지한 순흥 지역의
 수많은 의인들이 흘린 피와 후세까지 귀감이 될 '천비정신'을 다룬 이야기다.
 제작 총감독 김진동, 연출감독 최주환, 극본 안희철, 작곡 여승용 등
 베테랑 연출진의 눈을 사로잡는 무대 연출과 배우들의 멋진 연기가 어우러진
 뮤지컬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뮤지컬을 선보인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엔퍼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 구독문의
 053-253-0000



대구 아름마을 정신요양시설 식당 개소

대구행복진흥원은 소속 시설인 아름마을 내 생활인 식당을 설치하고 지난 23일 개소식을 가졌다. 아름마을은 2006년부터 가족의 보호가 어려

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아름마을에는 현재 만성 정신질환자 76명이 생활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2세다.

기존 식당은 협소해 공동식사로 인한 각종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고 인력이 적은 아침, 저녁, 휴일에는 생활인 관할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의 지원으로 2023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일환인 '생활인 식당사업'에 선정됐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미래 50년 비전 완성할 중장기 전략 수립

미래환경·기술·산업 변화 대응 7대 미래상, 22개 실행과제 도출

대구시는 미래 50년 비전과 전략, 아젠다별 과제, 중장기 로드맵과 미래상 등을 담은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대구정책연구원 및 공학, 교통,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실성 있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7대 미래상과 22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 신공항 기반 글로벌 애어시티

신공항과 항공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경쟁력과 원동력으로써 △신공항 기반 글로벌 경제허브 △24시간 잠들지 않는 중남부권 항공 경제벨트 △하늘길 이동이 자유로운 스카이하이웨이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통해 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와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 미래 모빌리티 입체도시

미래 신 교통수단은 도시의 생활 전반을 혁

꿈꾸는 대구 미래 50년 7대 미래상

- 1. 신공항 기반 글로벌 애어시티** (신공항)
 - 신공항 기반 글로벌 경제 허브 24시간 잠들지 않는 중남부권 항공 경제 벨트 하늘길 이동이 자유로운 스카이하이웨이 고부가가치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 2. 미래 모빌리티 입체도시** (모빌리티)
 - 수요 맞춤형 모빌리티 체계 시고 있는 사람 중심 교통 환경 자율주행 유희 네트워크
- 3. 꿈을 실현하는 청년의 도시** (일자리)
 - Open Innovation 2.0 생태계 글로벌 우수 인재의 유입 K-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 4. 일상이 편리한 ABB시티** (도시서비스)
 - ABB 혁신 빌리지 디지털 생활인 도시 'D-City' 데이터 활용 보안의 도시
- 5. 지속가능한 자원 자족도시** (도시자원)
 - 무한 청정 Green Energy 환경 워터 네트워크 기반 Green Water 환경 4차 산업혁명 Green Food 환경
- 6. 삶의 만족이 높은 활력 도시** (정주여건)
 - 대구형 미래 일자리 안전망 '수용·양육·안정' 3단계 '인구 쉼터' '자립의 한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Meta-Versity'
- 7. 글로벌 매력향의 도시** (문화관광)
 - 자연을 품은 E-Co-Live 환경 선진·문화·인재 D-Tech 도시형 글로벌 교감하는 K-Culture 유니버시티

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모빌리티 입체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 맞춤형 모빌리티 체계 구축 △사고 없는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자율주행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도출했다.

■ 꿈을 실현하는 청년의 도시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

맞춤형 공공인프라 및 기업 간 자원 공유를 위한 Open Innovation 2.0 생태계 구축 △글로벌 인재 정주여건 조성 △대구 메인넷 기반 K-블록체인 금융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청년이 모이는 도시를 구현한다.

■ 일상이 편리한 ABB시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ABB 혁신 빌리지 조

성 △디지털 쌍둥이 도시 'D-City' 추진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전략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지속 가능한 자원 자족도시

범국가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 및 자원고갈 등 글로벌 환경오염과 자원 위기에 대비해 △무한 청정 Green Energy 환경 △워터 네트워크 기반 Green Water 환경 △식량 자급자

족 Green Food 환경 조성 전략으로 미래 상황에 대응한다.

■ 삶의 만족이 높은 활력도시

미래 산업·기술과 인구구조 등 정주여건의 변화와 고령화 등 도시 활력 감소에 대비해 △기업과 연계한 대구형 미래 일자리 안전망 구축 △전(全) 생애주기 건강관리 체계인 '대구케어' 도입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메타버시티 조성 등의 전략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의 기반을 조성한다.

■ 글로벌 매력향의 도시

대구만의 특색과 매력이 가득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E-Co-Live 환경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D-Tech 트래블 △글로벌과 교감하는 글로벌 K-Culture 유니버시티 조성 전략으로 자연과 문화,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경계 가치를 제공한다.

미래 50년 발전전략은 산업, 환경, 문화 등을 포괄하는 대구시의 정책 비전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계획 등 시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수립한 미래 발전전략을 시장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50년 번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아이 지킴이' 민·관·경 동행

아동학대 예방 사업 협력

달성군은 재학대 피해 우려 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경 동행 방문점검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안전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고 있다.

'달성아이 지킴이' 사업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대구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재학대 피해 우려 아동 및 고위험군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동행 점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방문·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아이 지킴이' 사업이 정착돼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심리적 안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이 외에도 민관 연대를 통한 아동학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하거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안전도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자매결연 30주년 우호증진 서약

수성구와 호주 블랙타운시는 23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행정·경제·교육·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우호증진서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우호증진서약을 통해 활발한 인적 교류를 약속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공통 과제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문화분야에서 양 도시 학교 간 교류, 도서관 간 도서 교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각 도시 미술관에서 한국·호주 미술 전시회 개최 기회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군위군, 탄소포인트제 홍보

군위군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4월 23일 군위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군위NZ(Net-Zero, 탄소중립)서포터즈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4년 기후변화주간(4.22.-4.28.) 동안 올해 기후변화주간 메시지인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향후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탄소중립 실천 참여챌린지 동영상 촬영했다.

아울러 홍보부스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다 버린 폐건전지를 수거해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건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군위군은 지난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8시부터 10분간 군위군청, 상징물 등을 비롯해 19개소를 동시 소등하는 등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기후행동 확산에 기여했다. 박재성 기자

아울러 양 도시 주민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목표를 5년마다 세우기로 합의했다.

수성구와 블랙타운시는 1994년 1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경제(IT 기업 교류 세미나), 문화(양 도시 전통공연단 문화 교류 공연), 교육(청소년 교류), 공동기획사업(울루무문화관광 조성, Korea Suseong Garden 조성 추진) 등 다방면으로 교류하며 30년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을 통해 블랙타운시 공무원이 3개월간 수성구에서 일하게 돼 블랙타운시 공공개발 부지에 조성 예정인 '코리아 수성 가든(Korea Suseong Garden, 가칭)' 국제교류사업이 급물

살을 타게 됐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점진식에서도 프로젝트구상안 발표와 기본설계 확정을 위한 담화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했다. 수성구는 코리아 수성 가든이 오는 2027년 상반기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블랙타운시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양 도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30년간 함께 성장했고, 이러한 성취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두 도시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학교4-H 텃밭가꾸기 과제교육 가져

달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학교 10개교, 4-H회원 340여명을 대상으로 텃밭가꾸기 과제교육을 진행했다.

'4-H'란 명석한 머리(Head), 충성스런 마음(Heart), 부지런한 손(Hand), 강한 몸(Health)을 의미하는 자·타·노·체의 네 가지 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단체다.

340여 명의 관내 학교 4-H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텃밭가꾸기 과제교육은 식물을 직접만져보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새로운 환경으로 지친 마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주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17일 포산중학교를 시작으로 현풍중등학교, 농공초등학교 등 4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8종(고추 3종, 토마토 2종, 상추, 오이, 들깨)의 작물 모종과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부재료를 나눠 주고, 관내 청년 4-H회원들과 학교를 방문해 직접 교육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보건소, 청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협약

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23일 대구행복기숙사에서 '청년 생활인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협약(MOU)'을 체결했다.

성보, 통신, 유희, 행정기관이 밀집된 중구의 특성과 젊은 생활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 집단의 사전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내 생활터이자 워터인 대구행복기숙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

리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한다.

또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건소만 성립한 관리사업 안내 및 대상자를 연계할 계획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비만예방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지역사회 건강동계에 따르면 연령별 및 대구시와 비교한 중구의 심뇌혈관질환 인자율은 20대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조미경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3



경북교육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지원 워크숍

경북교육청은 지난 23-24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은 2024

년 유아교육 분야 국가시책사업의 하나로 유아의 안전한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가정 내 안전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 교육청(경북,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전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 교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공동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축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대구 엑스코서 26일까지 열려 25개국 330개사 1100개 부스 국내외 기업 제품·기술 전시 수출 상담, 콘퍼런스 등도 마련

경북도는 24일 대구 EXCO에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2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은 경북도와 대구시, 산업통상

자원부, 관계기관·단체,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고 (주)엑스코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4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유일, 최대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오는 26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그린에너지를 넘어, 미래에

너지로(Beyond Green Energy)'라는 주제로 25개국 330개사가 참가해 1100 부스를 운영하며 태양광 모듈, 인버터, 에너지저장 시스템, 배터리, 스마트그리드, 연료전지 등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아이솔라에너지, 그랜드션, 에스디엔, 오씨아이파워(주)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선도기업과 한화큐셀, JA솔라, 론지솔라, 징코솔라, 선그로우, 화웨이, 그로와트 등 태양광 셀·모듈과 인버터 분야의 세계 10대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혁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23개국 80여 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수출 상담을 한다. 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국내외 참가기업 간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위한 '그린에너지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가진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태양광 및 수소 시장 동향을 다루는 '국제미래에너지콘퍼런스'가 행사 기간 함께 열린다.

12개국 6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시장동향과 전략 등을 논의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의견 등을 공유한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올해 2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더욱 내실 있는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서 에너지 현안 해결책 제안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달리"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5월부터 법적 방역규정 해제 확진자 격리 권고도 하루만

경북도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먼저, 의료기관 및 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5월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 한편,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적 감수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

한다. 중증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하며, 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형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감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또, 2023-2024절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하고, 2024-2025절기 접종부터는 고위험군에 한정(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하여 무료 접종이 계속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하고,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향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지원은 도민 부담 경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지된다"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유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국내 최초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김천시 문 활짝

김천1산단 내 6013㎡ 규모 테스트베드+물류센터 개소

경북도는 24일 김천시 어모면에서 국토부, 경북도, 김천시, 도시의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업사업의 일

항으로 사업비 총 168억원을 투입해 김천일반산업단지 내 1만2500㎡ 부지에 건축물 전체 면적 6013㎡(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상온-저온 물류센터(3540㎡)와 △2층 테스트베드(2473㎡)시설, 홍보관이 있다. 국내 물류센터로는 최초로 테스트베드와 스마트물류센터의 복합시설을 제공하는 사례로, 테스트베드에서는 물류 기술 개발·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물류 복합시설에 실제로 적용한다.

이번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운영 개시로 관련 물류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 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의 기회를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물류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 가장 빠른 분야로 물류 강자가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김천 스마트 물류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미래 물류 산업 변화에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숭아 과수원 '나무좀' 급격히 증가... "확산 전 사전 방제"

우리나방 동시 방제 더 효과적



경북농업기술원은 최근 복숭아 병해충예찰 결과 경북지역 복숭아 과원에 나무좀류가 급속히 확산 조짐을 보여 농가의 특별한 관심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월 하순부터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 영천, 경산 등 9개 시군의 복숭아 선도 농가 35명으로 구성된 병해충예찰단의 예찰 결과 최근 모든 예찰 지역에서 나무좀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개체수가 4배 이상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빠른 방제가 필요하다. 나무좀은 겨울을 지난 성충이 나무줄기에 직경 1-2mm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줄기 속을 갉아 먹고 심할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하는데, 어린 유목, 동해, 습해, 해충 피해 등 수세가 약한 나무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적용 보호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방법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갈 때 오후 2시경 살포하되 주간부(지표면에서 1m 정도까지)에 약제가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살포한다. 나무좀 방제 시 우리나라를 동시에 방제하면

더 효과적이며, 주간부 별레 뽕이 보이는 부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부위에 수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서둘러 방제해야 한다. 또한, 기상의 영향으로 보르도액을 살포하지 못한 곳에서는 세균 구멍병, 잎오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살균제를 살포하고 낙후 후 방제도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진딧물, 순나방, 노린재 등도 잊지 말고 방제해야 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복숭아 병해충예찰단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는 동시에 특정 병해충이 확산하기 전 사전에 방제해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숭아 농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장애학생 금쪽 상담가 육성

경북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도내 특수교사 19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임상실습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의 양성 과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사 19명(유, 초 7명, 중 8명, 고 3명)을 선정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종합연수원에 위탁해 응용 행동 분석, 행동 평가와 중재, 단일 대상 연구, 연구방법론 등 270시간의 연수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임상실습 과정으로 팀당 5회 기(1회기-3시간)의 총

15시간의 실습 과정을 진행한다. 행동중재 전문가 임상실습 과정을 마친 특수교사들은 6월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돼 장애학생의 위기행동 중재 방법을 컨설팅하며 장애학생 금쪽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특수교사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총 270시간의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행복한 학교생활이 보장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전역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일제 실시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22개 시군, 경북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과 함께 경북 전역 동시에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초고령화 시대에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시군은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노인 인권 존중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권역별 어르신 방문 상담과 가두 캠페인을 일제 실시한다. 경북도는 어르신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 전국 최초로 24일 노인 보호 광역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경찰청,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경북광역치매센터 등 11개 광역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을 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경로당 810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435개소에 배포하고,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인학대 주요 사례를 실은 책자 1300부를 노인요양시설에 배포했다.



초대 우주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임무본부장엔 존 리 전 나사(미국우주항공국)본부장을,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인선을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영빈 청장 내정 이유로 “우리나라 대표 우주항공 연구자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우주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연구자 중 한명”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 21대 국회 ‘입법 드라이브’... ‘거야 시즌2’ 서막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야권 단독처리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2’를 예고한 셈이다.

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해 이러한 처리 과정을 비판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해당 법안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 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며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차

지한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나”라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속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 등 농민민생 4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여당 부재 상태에서 처리했다.

당시에도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일정보고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 중심인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에 192석을 실어준 것은 야당과 협조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여당과 ‘2+2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다 중단된 이시제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황유예) △폭염 시 작업 중단 내용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등도 가능한 처리하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입법에 걸림돌인 법사위원장 확보도 공언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감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막히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대응방법도 같이 경험했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송언석 의원,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총 168억원 투입 김천1일반 산업단지 내 지상 2층 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본격화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도모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김천·사진)이 24일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년 7월 국토교

통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으로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가 협업체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억원(국비 46억5000만원)을 투입해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에 지상 2층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테스트베드’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완료된 신기술을 ‘물류센터’에 적용해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힘 낙선자들 “친윤 지도부 구성 안돼”

윤 “원팀으로...다시 협력” 쏜소리 못물...“통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4·10 총선 낙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낙선자들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1시간45분간 오찬 성격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찬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낙선자들도 대통령과 현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헌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하셨다. 또 국정에는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총선 국면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력했지만 미안하다. 잘해보겠다”며 “우리가 원팀으로 정권을 만들었다. 앞으로 또 3년 남았으니 다시 협력해서 잘해보자”고 당부했다.

낙선자들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문제인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냐”라고 묻는 등 쏜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낙선자는 “3년 전에 전 정부 대신 때 문제인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로만 하면 된

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상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통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영남권 낙선자는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에게 일을 책임 있게 맡기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책임을 딱딱 물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부처)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간섭) 안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도권 낙선자는 “당 지도부 구성이나 운영을 종전처럼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하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 중심, 소위 말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낙선자는 당에서 계속 사람을 내보내는 등 “통합을 함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준비해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저출생·탈북민 관련 정책, 당사 사무 공간 이용 등 사회 현안 정책 방향부터 실무적 건의가 폭넓게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의견을 내기보단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며 “또 다른 의원은 ‘반윤’처럼 돼 있었는데 ‘좀 따뜻하게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힘, 내달 3일 원내대표 선거...1일까지 후보자 등록

단독 후보 등록 시 투표 미 실시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 등을 결정했다. 선거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후

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일 오후 5시까지다. 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직후에는 기호를 추천하게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복수 후보가 등록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합동토론회가 진행된다.

공통질문 2개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

관위에서 확정한다. 후보자별로 상호 주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각 후보자에게 10분씩 주어진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단독 후보인 경우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안강지역 영농철 농촌인력 수급 해소에 '총력'

경주시가 지난 23일 안강농협 내 경제사업장(자재센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판식을 갖고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정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을 비롯한 김종우 안강읍이장협의회장, 고향주 부모모임회장 및 농가주부모임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안강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

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안강은 포항과도 인접해 있어 인근 시민들도 농촌인력수급에 참여 가능해 경주와 포항 농촌주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왕궁영상관 재개관... 3면 디스플레이 탈바꿈

박혁거세 탄생 설화·월성 복원 다큐·포토존 영상 등 내달 1일부터,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난해 10월과 12월부터 영상제작과 시설공사를 각각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했다. 새롭게 문을 열 신라왕궁영상관은 기존 2면 디스플레이를 탈피하고 전면과 좌·우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3면 디스플레이로 탈바꿈했다. 콘텐츠는 △박혁거세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 4분 30초 분량 △월성 발굴의 역사와 신라왕궁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7분 분량 △포토존 영상 3분 분량 등이 상영된다.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궁영상관 재개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신라의 역사와 유적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신라의 궁궐이었던 월성을 소개하는 신라왕궁영상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음달 1일 재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라왕궁영상관은 신라시대 경주의 왕궁 모습 등을 영상으로 구현한 곳으로 월성 인근 옛 인왕파출소를 리모델링해 2013년 5월 개관했다. 올해로 11년째인 신라왕궁영상관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재개관은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들여



한수원과 탄소중립 최적모델 개발한다

스마트넷제로시티 개발 업무협약 테크노폴리스 조성방안 추진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 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두 기관은 24일 부산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넷제로시티(SMR Smart Net-Zero City, 이하 SSNC)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낙영 경주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기후위기 극복의 힘,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의 메인행사로서 I-SMR & SSNC 론칭세션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 △CF100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SMR 활용 스마트넷제로시티 모델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수원은 현재 탄소중립도시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상 중이다. 경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탄소중립은 글로벌 선결 과제이며 SSNC 모델 개발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경주시와 함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미래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물, 가정의 달 맞아 20% 할인 이벤트 진행

5만 원 이상 구매 회원 대상 사은품도 증정... 단 1일 1회

경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경주 쇼핑몰에서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20% 할인 행사와 함께 5만 원 이상 구매한 경주물 회원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행사를 펼친다. 단 1일 1회 최대 5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판매 품목으로는 2023년 K살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삭쌀을 비롯해 버섯, 미역, 유과, 전동차 등 고품질의 농수산물부터 지역 특색이 담긴 기념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신규가입 고객 대상 5천 원 쿠폰 증정은 물론 매월 우수 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 5명을 선정해 1만원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및 제품 관련 문의는 경주물(054-853-0230)로 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소상공인 22곳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 모집

점포당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스마트화 지원 등 최대 1400만원

경주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 22곳(예정)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전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 총 공급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분야는 △전문컨설팅 △홍보지원

(전단지, 리플렛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진열대, 소독기, CCTV 등)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치)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4.23.) 기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착한가격업소, 사회적배려자 등은 우대 지원된다. 접수는 방문·우편(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북경제진흥원) 또는 이메일(eugene@gepa.kr)로 가능하다. 선정은 현장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최종 평

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센터 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2021년에 첫 시행돼 지난해까지 69개 점포가 수혜를 받아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경주시가 쏜다"... 지역 청년 대상 카페 포인트 7만원 지급

24일부터 선착순 370명에 지급 19~39세 청년 대상 모바일 포인트



경주시가 24일부터 지역 청년 대상 7만원 상당의 카페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꿈이음 청년 카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MZ세대의 성향을 반영한 사업으로, 지역 카페 3곳에서 자유롭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지역 카페는 △맛업커피 피하우스(성건동) △우연히 책방(성건동) △피모방미(용강동) 등 총 3곳이다. 신청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청년이다. 또 주소지가 경주가 아닌 경북 도내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인 경우 지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선착순 모집을 받으며 모집 정원은 37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www.godo1539.com) 또는 경주시 청년센터 ☎054-742-1539로 문의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미취업 청년들이 꿈이음 청년카페를 많이 이용하여 취업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지역 카페의 이용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청송군의회, 24일 2일간 제 271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는 24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일간 회기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5,135억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745억원보다 8.22% 증가된 39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국가유신제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외 3건이다.

그외 황진수 부의장의 5분 자유 발언(환경보호를 위한 군의 선도적 정책추진을 촉구)이 있다.

권태준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시기성, 적정성, 합리성 등을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분들께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개선에 적극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소비자 물가 안정화 총력

청도군은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청도군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설 명절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바가지요금,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상·하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동결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화를 도모했다.

특히 상수도요금은 2015년 물이용 부담금 인상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전통시장 10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물가모니터단 운영,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유도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축산항 물가자미 축제에서 맛의 여행을

제14회 물가자미축제 5월 3일 개막 가정의 달 맞아 다채로운 체험·공연

동해안 최고의 향구로 손꼽히는 '천리마항' 축산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14회 영덕 물가자미축제가 펼쳐진다.

'가자, 미래로! 2024년 축산항 물가자미 축제에서 맛의 여행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 마당과 문화공연, 부대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핑거푸드존을 확대 편성해 물가자미를 활용한 색다른 레시피와 신선한 요리들을 다양하게 준비키로 했다.

또한 키즈존을 비롯해 맨손 물고기잡이 체험,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울릉군은 24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울릉군이 울릉군가족센터에 위탁해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해,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연중 추진 중이다.

29명의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그리고 울릉경찰서 직원들이 정성들여 직접 조리한 4종

어선 승선 체험, 선상 가지미 낚시 대회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곳곳에 배치해 가정의 달에 안성맞춤인 행사가 되도록 기획했다.

개막식은 새달 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새물길 서포터즈'와 축산품물패의 퍼레이드가 축제의 포문을 열고 가수 하유미, 윤희 등이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영덕 물가자미 축제 추진위원회 정창기 위원장은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영덕 물가자미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찾아주시는 모든 분이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 착실히 디제너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4회 영덕 물가자미축제가 열리는 축산항은 올해 개항 100주년을 맞았으며, 이틀만 해안 트레킹 코스인 '블루로드'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조여은 기자

의 밑반찬을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60명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나눠드리면서 말벗도 하며 식사에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

수혜대상 어르신들은 정성들여 준비한 밑반찬을 제공받으면서 울릉군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릉군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더 나은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캠페인 시행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민원발생 예방

영양군은 지난 23일 영양읍 동부리, 현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산불예방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주



민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했다.

권윤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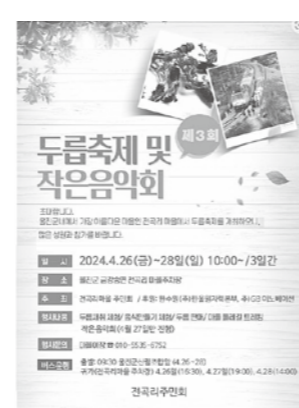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악회에 초대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쌈싸름한 두릅향기와 함께 봄을 즐겨요

울진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봄맞이 두릅 축제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곡리 마을 주민회에서 주최하며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주)GB이노베이션 후원으로 진행된다.

축제 프로그램은 △두릅 채취 체험 △두릅과 마



을특산물 경매 및 판매 △음식 만들기 체험 △마을 돌레길 트레킹 △보물찾기 △세기차기 △달보기 노래자랑 △작은음악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윤환 기자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청송군보건의료원은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5월 7일(화)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군은 2020년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오고 있다.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감 감소와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무료접종 대상 확대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이며,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기존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특정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

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는 회복 6~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한편 군민들의 접종률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월 7일부터 30일까지 마을별 집중기간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기간 이후에는 청송군 소재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개소(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진보면)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삼성의원, 대구의원, 녹십자의원, 금성과의원, 정진의원 총 5곳이며 청송군 누리집(https://www.c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54-870-7230, 7222)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첫 모내기 행사 추진

청도군은 24일 (사)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이서면 금촌리에서 2024년도 재해없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첫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업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이양과 논이모작을 통한 곡물자급률향상을 위한 조사료 호미 수확 시연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이양한 벼품종은 진옥벼로 조생종이며 타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며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에 저항성이 있어 병해충 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8월말경 수확하여 추석전 조기출하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조여은 기자

청도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트강소농교육 개강

청도군은 지난 23일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강소농교육' 개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딸기 재배 농가와 준비 농가 23명이 참석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될 이 교육 프로그램은 딸기 재배 기술, 스마트팜 시설 관리, 농업 경영 및 유통 데이터 분석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간장 나눔행사 개최

봄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요

울릉군 새마을부녀회가 4월 23일~24일 이틀간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된장·간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혼자서는 장을 담그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이른 봄(울력1월)에 다가 두었던 메주를 이용해 만든 된장과 간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된장·간장은 읍면별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200여 가구에 새마을회원들의 손을 통해 직접

전달 될 예정이다. 박명숙 부녀회장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담근 된장·간장을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봄날 주위의 따뜻한 마음을 몸소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행복한 울릉, 따뜻한 울릉을 만드는데 새마을이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행사를 준비한 새마을부녀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자조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이웃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울릉군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한다.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 성료

의성군은 지난 19일 오후 7시의 성 복원회전교차로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5월15일)을 맞아 봉축탑 점등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의성불교사암연합회(관음사 자원스님)가 주최, 의성 불교신도연합회(회장 권혁만)가 주관, 의성군이 후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 고운사 등운 큰스님, 박형수 국회의원, 김광호 군의회 의장, 최태림 경북도의원, 김유식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사찰 스님,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구호로 열린 이날 봉축탑 점등식은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평등의 세계를 구현하는 불국토를 이루기를 기원하며 삼귀의, 찬불가, 봉행사, 점등, 축가, 탑돌이, 난치병 어린이돕기 성금 모금 순으로 진행됐다.

고운사 주지 등운 큰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깨달은 중도 연기(中道緣起)야말로 나와 이웃, 사회, 못 생명과 모든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참된 소통의 길"이라며 "의성군민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봉축 연등탑 점등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자비의 등불이 세상의 어려운 곳을 밝혀 사랑과 지혜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여 모든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산파켄스'로 풍경바꾸

성주읍 성주읍은 읍 시가지에 '산파켄스'를 식재해 화사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읍민에게 선사했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주요 도로변 화분 100여 개에 따스한 봄 햇살과 잘 어울리는 화초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읍 시가지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주인공은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수종 산파켄스란 화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워 읍 시가지의 모습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시가지 도로변 화분 약 200개 중 절반가량에 산파켄스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추후 나머지 절반에는 지난해에 심은 청보리의 관상 가치가 다하면 또 다른 아름다운 꽃을 식재해 시가지 불거리를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영주시, 8·15 광복살 재배단지 '첫 모내기'

총 20ha 조성 120톤 광복절 시기 '조기출하'

대한광복단 발상지인 함일 의병의 고장 영주에서 '8·15 광복살'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24일 안정면 오계리 최영기 농가의 논에서 '2024년 8·15 광복살 재배단지 첫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쌀 시장 개방과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안정농협과 협력해 지난 2012년 추석용 햅쌀로 브랜드화한 '8·15 광복살'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미래 세대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조기 수확으로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3일 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에 8·15 광복살을 직접 전달해 독도수호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올해 광복살 품종은 추석 전 수확에 적합한 조생종인 진옥벼와 빠르미벼, 해담벼로, 병충해에 강하며 밥맛이 좋은 품종이다.

시는 8·15 광복살의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을 통한 안정면과 장수면에 계약재배 단지 총 20ha를 조성해 12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재배농가에는 생산장려금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8·15 광복살의 차별화된 햅쌀공급을 위해 품종 특성에 맞춘 각종 육단계별 현장 지도를 통해 전국적인 명품 햅살



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햅쌀 조기출하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영주쌀 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청년들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기'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네트워킹 데이 개최

고령군은 지난 23일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활동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민화 그리기, 독서 토론, 배드민턴 등을 주제로 총 9팀의 동아리가 지난 3월부터 활발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 카페에서 진행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네트워킹 데이는 청년동아리 대표, 회원 등 참여자 20여 명이 참여해 네트워킹을 통한 청년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됐다.

또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청년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문화, 주거 복지, 청년 주도활동 등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과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한 한 청년은 "오늘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네트워킹 자리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고령군에 역동적인 청년문화가 확산되고 잘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의 꿈이 영그는 고령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주의보 재할프로그램 실시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23일 신원초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주의보' 재할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면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허리과 목에 통증 이외에도 심장과 폐 기능에도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주의보 재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추후 학기 중 이론교육 및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상으로 방학기간 운동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하 기자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생활 안전취약시설 민·관 합동점검 군민 안전의식 제고·안전사고 예방

성주군은 지난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61일간 노후·취약시설 및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숙박시설 13개소 △교통시설 10개소 △복지시설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 등 총 46개소 생활 속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성주군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계부서

공무원 및 공사·공단, 민간전문가(건축, 전기, 가스 등)와 함께 성주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방분야 점검도 합동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가정용 자율안전 점검표를 배부하여 군민들에게도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종료 후에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적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보수보강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들께 자율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성주군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초청 '영주인성아카데미' 개최

영주시는 23일 영주시민회관에서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를 초청해 'AIX 인간지능의 시대'라는 주제로 4월 영주인성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는 베스트셀러 '트래버스(2020)'를 비롯해 '스게인인류(2021)' '초인류(2023)'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격히 전환기를 맞이한 인류의 미래에 관해 많은 저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EBS 특집다큐 '게임의 법칙', tvN STORY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등의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롭게 진화할 인류의 미래에 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진행됐다. 에이아이(AI)를 통해 새롭게 진화할 인류의

미래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방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역 중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영주시는 5월 27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이시형 의학박사를 초청하여 '행복도 배우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월 인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

5월 31일 오후 7시에는 영주문화예술회관까지 홀에서 최정원&드림뮤지컬팀을 초청해 '나의 삶, 나의 무대'를 주제로 인성콘서트(뮤지컬 공연)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고령군관광협회의는 지난 11부터 '왕의 길, 현의 노래(王道絃歌)'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 '왕의길 현의 노래'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휴식과 쉼, 힐링과

자연 친화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최근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써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지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지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관광자원들을 상품화해 수도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가야 고령만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용현 고령군관광협회회장은 "지역 정체성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자연친화적인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가야 관광 고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귀농인 영농기술'영천시가 책임진다

작목별 현장학습 5개 과정 시작 주요 작목 영농기술 현장 습득



영천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농인 작목별 현장학습'을 추

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 지역 주요 작목의 선도농가를 현장방문해 작목별 재배 일정에 따른 주요 영농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는 과정으로 마련했다.

지난 15일 마늘 과정을 시작으로 포도, 복숭아, 사과, 딸기 총 5개 작목의 재배 시기별 주요 과정을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술을 배우며 직접 실습도 진행해, 초보 귀농인의 실질적인 영농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명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 대구광역시일보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